

그린산업

미 대선 중간 점검과 그린산업 투자 미 공화당의원들 IRA 유지 의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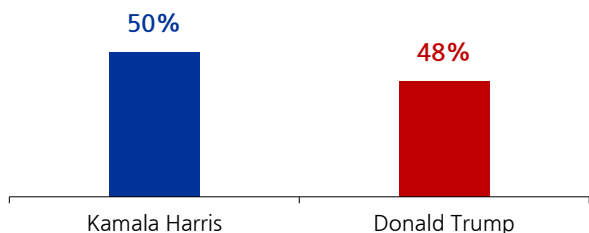
그린산업 포인트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세로 전환. 선거일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예상. 그린산업 투자는 현재의 업황과 기업들의 실적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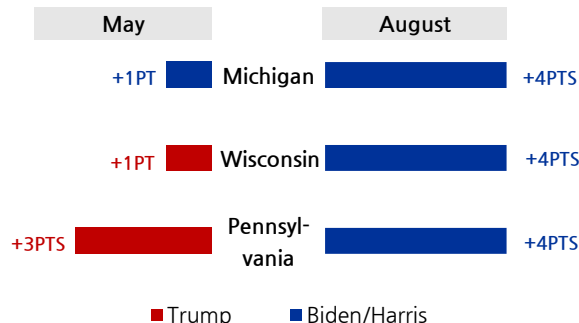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해리스의 선전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일부에서는 역전하는 상황
- 양 캠프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판세가 바뀔 수 있는 국면. 선거 일까지도 결과 예측하기 어려울 가능성 높아
-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일부 상원의원이 IRA 유지 의견 공개한 상태여서 트럼프 당선되어도 IRA 큰 틀 유지 예상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린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단기 업황과 실적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
- 금리가 4년간의 긴 상승기를 끝내고 하락기에 진입한다는 것도 그린산업 전반에 긍정적
- 투자규모가 커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업황 턴어라운드 빨라질 것
- 전기차/배터리 산업도 금리 인하가 긍정적이나, 현재의 수요부진의 주원인은 트럼프도 금리도 아닌 하이브리드 약진
- 전기차업황이 개선되려면 미국과 유럽에서 정책지원과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어야
- 선행 지표인 한국 양극재 일 평균 수출량 (8월 10일 기준) 369톤으로 전년비 57% 감소 2년내 최저치로 하락

도표 1. 미국 대선 최근 여론조사, 해리스가 우위



자료: IPSOS, 유진투자증권



자료: NYT/SIENA CNN 보도, 유진투자증권

해리스 선전으로 미 대선 팽팽한 구도로 전환 바이든의 사퇴 이후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단합한데 이어 무당파층에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들에서는 스윙스테이트들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집권당으로 가지는 정책결정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캠프의 절대우세 분위기는 완전히 지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 당일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양 캠프에서 누가 실수하느냐에 따라 미 대선이 결정될 것이다.

도표 2.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그린산업 영향

	민주당 재집권	공화당 탈환
재생에너지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속도 늦어지나 성장 유지
전기차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연비규제 대폭 축소로 전기차 출시 늦어질 것
수소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 동일
석유/천연가스	신규 프로젝트 위축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로 공급 증가
석탄	광구와 발전 사업 축소	발전 사업 축소 유지
주요 정책	IRA/인프라부양법	공화당 정강정책 20 / 아젠다 47
주요 정책 내용	그린산업 전체에 생산 세액공제	IRA 의 전체 구조는 유지하나, 자국내 생산 요건 강제
	투자세액공제, 공장 건설에 정부 보증대출	전기차 부문 구매 보조금 요건 까다롭게 변경
	밸류체인 업체들에게 생산량 비례 세액공제	천연가스/석유 광구 프로젝트 개발 허가 확대
	그린산업 전체에 대규모 R&D 자금 지원	그린산업 R&D 자금 지원 대폭 축소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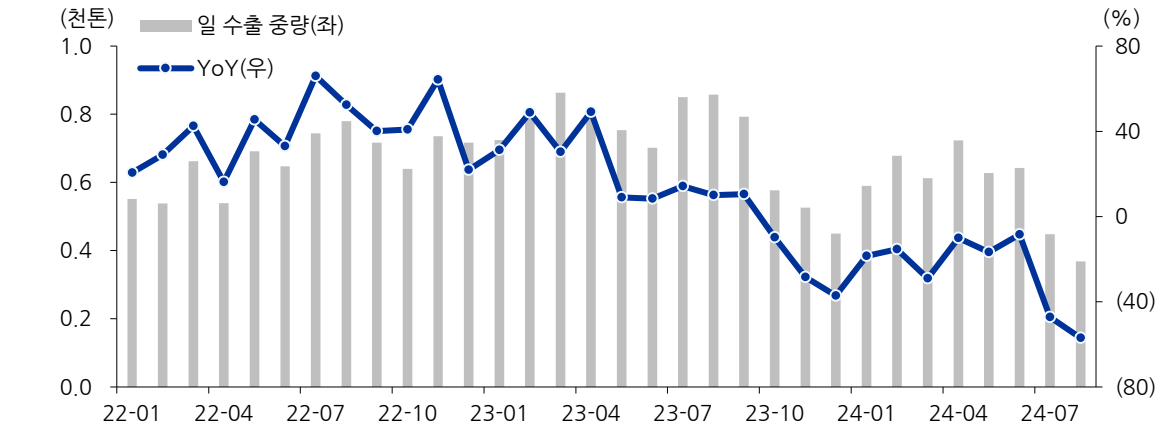
공화당 의원들의 IRA 공개 지지 행동이 의미하는 바 커

지난 주 공화당 하원의원 18 명이 IRA 내의 클린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가 바이든의 IRA 를 전면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들이 IRA 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와 직결되어있다. 일부 상원의원도 IRA 로 인한 지역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IRA 가 전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일부 조항들에 대한 수정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린산업 투자, 현재의 업황과 기업들의 실적 중심으로 해야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히 되던 시기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산업 관련 투자도 지나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더군다나 IRA 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 기간에는 현재의 각 그린산업 업황과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최선이다. 금리가 4 년간의 상승기를 지나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도 그린산업에 긍정적이다. 투자규모가 커서 금리하락에 가장 혜택이 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전기차/배터리는 현재의 업황이 부진해서 투자 적정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을 권고한다. 현재의 부진의 원인이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들의 지원과 규제의 감소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이 재도입되고, 차기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가 확정된 하이브리드 중심의 연비규제를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강화하면 전기차/배터리 시장이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선행지표인 한국 양극재 수출 중량은 올 8월 10일 현재 지난 2021 년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태이다.

도표 3. 한국 양극재 수출 부진 지속



자료: TRASS, 유진투자증권
주) 8월은 8월 10일까지의 잠정치

도표 4.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2,007	2,622	3,440	4,456	5,578	6,746	7,973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770	2,331	3,079	4,015	5,039	6,087	7,169
YoY(%)	51.2	56.3	23.2	31.7	32.1	30.4	25.5	20.8	17.8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10.7	13.7	17.6	22.6	27.8	32.9	38.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0,567	12,479	14,559	16,736	18,947	20,845	22,508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039	11,816	13,724	15,679	17,609	19,127	20,272
YoY(%)	83.7	36.6	24.0	17.7	16.2	14.2	12.3	8.6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2.4	37.0	41.7	46.3	50.5	53.2	54.8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810	975	1,159	1,367	1,607	1,908	2,294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308	3,722	4,194	4,735	5,357	6,173	7,092
YoY(%)	15.1	18.1	7.6	12.5	12.7	12.9	13.1	15.2	14.9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4.3	26.8	29.6	32.8	36.4	41.1	46.3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05	19,622	23,190	27,153	31,354	35,502	39,606
YoY(%)	55.0	35.7	20.6	18.9	18.2	17.1	15.5	13.2	11.6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2	24.3	27.9	31.6	35.1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